

몽골 카라코룸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유적 연구

A Study on the Nestorian Christian Church Site in Karakorum, Mongolia

제1저자 : T. Batbayar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제2저자 : G. Eregzen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소장

교신저자 : 양 시 은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동방 전파

III. 몽골 카라코룸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유적

VI. 맺음말

국문 요약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몽골-독일 공동조사팀에 의해 발굴조사된 몽골 카라코룸 북쪽 외곽에 있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유적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장방형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해당 복합건축유적은 건물의 평면 배치와 유구의 중복 관계를 근거로 두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우선 최초의 건축유적은 담장시설 중앙부에 앞쪽의 큰 방과 뒤쪽의 작은 방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의 건물배치를 보여주었다. 남향을 기본으로 하는 몽골의 전통 건축과는 달리 동향의 건축물로, 뒤편의 작은 방에는 제단 시설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적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특징적인 십자가 파편과 함께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였던 촛대와 유사한 형태의 청동유물이 출토되어, 몽골제국 시대에도 유행하고 있었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적이 카라코룸 북쪽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루브룩의 여행기에 서술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의 위치와 부합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바 있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들이 장방형의 평면 구조와 끝부분에 제단이 있는 감실(예배당)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확인된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해당 교회는 13세기 전반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발굴조사 결과 화재로 폐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교회가 폐기된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치 구조를 달리하는 3동의 기와 건물이 곧바로 들어섰고, 그 구조나 출토 유물을 통해 불교 사원이었음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측면 건물 내부에서는 소뿔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해당 장소에서 특정 의례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몽골, 카라코룸,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유적, 불교 사원, 십자가

I . 머리말

동방기독교 혹은 경교라는 명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 중국 및 몽골 초원 등으로 확산되었다. 중국에서는 9세기 말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그 유행이 시들해졌지만, 몽골의 경우에는 여러 유목 집단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몽골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성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루브룩이나 마르코 폴로 등의 몽골제국 여행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루브룩의 여행기에는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외곽에 위치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00년대 후반 몽골-독일 공동조사팀은 카라코룸의 북쪽 외곽에 있는 복합건축유적을 발굴조사 하였는데, 끝부분에 둥그런 구슬 모양을 한 십자가 파편이 출토되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유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유적에서는 건축 배치 계획과 구조를 달리하는 두 시기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는데, 가장 먼저 지어진 건축물들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로 이해된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해당 교회는 13세기 전반에 축조되었고, 13세기 후반에 화재로 폐기되면서는 그곳에 불교 사원이 축조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몽골-독일 공동조사팀에 의해 발굴조사된 카라코룸 북쪽 외곽에 위치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 및 관련 연구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¹⁾

II .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동방 전파

동아시아에 최초로 유입된 기독교인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Nestorianism)는 중국 당나라에서는 경교(景敎)라는 이름으로 널리 유행하였다. 유럽에 기독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교리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Nestorius)는 예수에게는 완전한 신성(神性)과 완전한 인성(人性)이 함께 존재한다는 ‘신인양성설(神人兩性說)’과 ‘마리아 비성모설(非聖母說)’을 주장하였고, 알렉산드리아의 총주교였던 키릴로스(Cyrillus)는 예수의 신성(神性)만을 강조

1) 불교 사원에 대한 부분은 지면 관계상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하는 ‘단일성설(單一性說)’과 ‘마리아 성모설’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였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자 비잔티움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431년에 에베소(현 튀르키예 셀주크 에페소스) 공의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종교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 선고를 받고 이집트로 유배되어 451년에 죽음을 맞이하였다(장효현 2014: 11).

에베소 공의회 이후 로마제국에서 쫓겨난 네스토리우스파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안에 있던 니시비스(Nisibis, 현 튀르키예 누사이빈)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498년에는 셀류키아-크테시폰(Seleucia-tesiphon)에 동방교회를 세우고 가톨릭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에 의해 사산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페르시아 지역을 기점을 중심으로 점차 동방으로 교세를 확장하였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간 지점에 있는 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중심으로 하였던 소그디아나에서는 기원후 1세기부터 이미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곳이었기에 종교적으로도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가 모두 공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유입과 전파에 대해서도 특별한 저항이나 박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마르칸트에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대주교구가 설치되어 중앙아시아 및 초원지역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다(김호동 2002: 111).

이후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도 전래되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여 ‘파사교(波斯教)’라고 불렸으나, 현종(玄宗) 대에 이르러 ‘경교(景教)’로 확정되었다. 17세기 초 중국 시안(西安) 인근에서 발견된 ‘대진경교 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는 당(唐) 건중(建中) 2년(781) 장안(長安) 서녕방(西寧坊)의 대진사(大秦寺)에 세워진 비석으로, 당시 경교가 장안에 널리 유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비문은 약 2천자의 한자와 고대 시리아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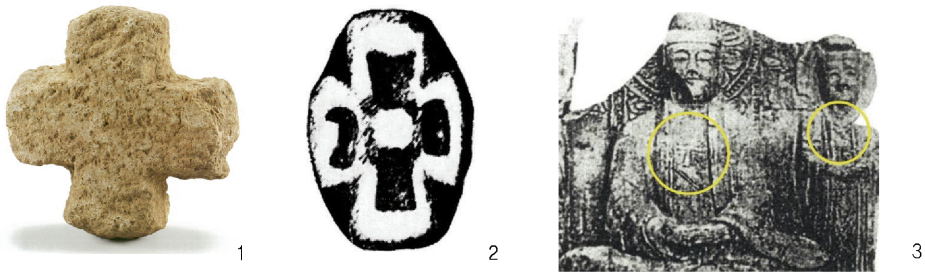
본문의 1행에서 8행까지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천지창조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경교의 교리·의례 등을 서술하였다. 이어 8행부터 20행까지는 대진경교가 당나라 정관(貞觀) 9년(635)에 아라본(阿羅本)²⁾에 의해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고, 태

2) 대진국(로마제국)의 수도승으로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을 인솔해서 635년 장안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천주교를 전파한 인물이다. 『당회요(唐會要)』 권49에는 그를 페르시아에서 온 승려라는 의미에서 ‘파사승(波斯僧)’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라본은 아브라함(Abraham)의 음차라고도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다(정지호 2022).

중(太宗)에서 덕종(德宗)에 이르기까지 황제의 성덕을 기리는 등 경교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교의 승려인 이사(伊斯)의 공덕을 찬양하였다. 이 밖에도 비석의 하단부에는 비석의 건립에 기여한 60여명에 이르는 승려들의 성명과 직책, 비석을 세운 일시 및 세운 사람이 새겨져 있다(정지호 2022).

해당 비문에는 ‘참되고 영원한 진리는 오묘해서 명명하기가 어려웠지만 공적의 효용이 잘 드러나 임시로 경교라고 부르게 되었다’³⁾라는 문구가 전하고 있어, 경교 명칭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635년에 중국으로 들어온 이후 유교, 불교, 도교와의 습합(習合) 및 당 황실과의 밀착을 통해 경교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유행하였다.

그렇지만 도교(道敎)를 숭상하던 당 무종(武宗)이 회창(會昌) 5년(845)에 불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의 탄압 정책을 펼치면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역시 쇠퇴의 길을 걸었다. 875년에서 884년 사이에 일어난 황소(黃巢)의 난 때에는 신자들이 대규모 학살을 당하였는데, 이때 경교 신자들은 당을 떠나 중앙아시아⁴⁾와 몽골 초원 지역으로 피신하였다.



[삽도 1] 경교 관련 유물

- 1.경주 불국사 출토 십자가(©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아브리코스절터 출토 점토판(강인욱 2018: 도면6 재인용)
3.훈춘 팔련성 출토 불상(강인욱 제공⁵⁾)

3) 真常之道，妙而難名，功用昭彰，強稱景教。

4) 키르기스스탄의 이석물 호수 인근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들의 공동묘지와 610개에 달하는 비석들이 발견되었다. 묘지석에는 네스토리우스파 특유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시리아 문자로 사망자의 이름과 사망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김호동 2002: 161~162). 가장 이른 것은 858년과 911년으로, 이를 통해 경교 교도들이 당나라의 회창폐불(會昌廢佛) 사건 이후 중앙아시아 등지로 피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공동묘지에는 유라시아 전역을 휩쓴 흑사병이 유행하였던 14세기 전반인 1338년과 1339년에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묘지석도 다량 발견되었다.

5) 한겨레 2020년 1월 17일자 [책과 생각]강인욱의 테라 인코그니타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924770.html>



[삽도 2] 몽골 고원의 주요 부족들(김호동 2016: 128)

경교는 당시 당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통일)신라와 발해에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유물로는 1956년 경주 불국사 경내에서 발견된 석제 십자가와 중국 훈춘(琿春) 팔련성(八連城)에서 출토된 발해 삼존불상의 목걸이에 걸려 있는 십자가, 러시아 연해주 아브리코스 발해 절터에서 발견된 점토판에 찍힌 십자가 등이 있다.

한편, 일찍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마련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11세기경에 소그드 상인들의 교역 과정에서 케레이트(Khereid, 克烈), 나이만(Найман, 乃蠻), 옹구트(Ongud, 克唃古特) 등과 같은 몽골의 유목 집단(ulus)에도 전래되었다(안주홍 2019: 57~59). 몽골제국이 출현하기 이전 씨족,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몽골 초원에서는 유목 수령의 결정에 따라 부족의 집단적 개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내몽고 츠핑시(赤峰市)를 비롯한 내몽고 및 화북(華北) 일원에 두루 퍼져있던 옹구트인들의 거주지에서는 여러 편의 십자 비석이 발견되어 당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조원 2018: 196). 또한 몽골 초원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케레이트의 경우에도 서구에서 사제왕 요한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옹 칸이 칭기스 칸 출현 당시 바로 이 부족의 군주였다(김호동 2002: 181).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도 몽골제국 출현 이전에 몽골 초원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널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칭기스 칸이 주변 부족들을 점령하고 세력을 확장하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또한 자연스럽게 몽골제국에 흡수되었다. 특히 칭기스 칸의 후손들은 대부분 케레이트 족으로부터 아내를 얻었기에 몽골제국에 친숙한 종교가 될 수 있었다(알탕수흐 델게레흐 2020: 37).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몽골제국에서 칭기스 칸의 4남 툴루이의 아내이자 몽케 칸(Мөнх хаан, 夢哥可汗)과 쿠빌라이 칸(Хубилай хаан, 忽必烈可汗), 그리고 훗날 일 칸국의 홀라구 칸(Хүлэгү хаан, 旭烈兀汗)의 어머니였던 소르카타니 베키(Сорхатани Бэхи, 唆魯禾帖尼別吉)가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원(元)의 세조(世祖) 쿠빌라이 칸은 충렬왕 25년(1299)에 기와르기스(Körgis, 闕里吉思)를 정동행성(征東行省)의 중서성(中書省) 평장정사(平章政事)로 삼아 고려의 국정을 간섭하게 하였다. 고려의 노비제를 혁파하려고 하였던 인물로 잘 알려진 기와르기스⁶⁾ 역시 네스토리우스파 교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효현 2014: 12).

종교적으로 관용과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몽골제국 시기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복음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의 ‘아리가온(Arkagun, 也里可溫)’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였다. 13세기 기욤 루브룩(Guilielmus de Rubruquis)의 몽케 칸 시기의 몽골제국 『여행기(Itinerarium)』나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쿠빌라이 칸 시기의 몽골제국 여행기인 『동방견문록(Divisament dou monde)』에도 여러 지역에 수많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인들이 살고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내몽고 지역의 옹구트족으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였던 마르코스(Marcos)와 랍반 소마(Sawma)는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기도 하였다. 1280년 홀레구 울루스(일 칸국)⁷⁾의 바그다드에 도착한 마르코스는 1281년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단의 총주교로 선임되어 야발라하(Yahbu-Allaha) 3세로 즉위하였다. 또한 소마는 유럽과의 정치군사적 연맹을 추진하던 아르군 칸(Аргун хаан, 阿魯渾汗)의 지시에 따라 1287년부터 1288년까지 유럽 각지를 순방하면서(김호동 2016:

6)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이자 14성인의 한 명인 성 게오르기우스(Georgius, Saint George)에서 유래한 기독교식 몽골 이름으로, 기와르기스, 고르기스 등으로 불린다.

7) 현재의 이란과 그 주변 국가 영토로, 서쪽은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동쪽은 아무다리야까지, 북쪽은 캅카스 산맥에서 남쪽은 페르시아 만에 이르렀다.

158~159), 로마의 교황 및 서방 국가의 왕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로 인해 교황 니콜라우스 4세(Papa Nicholas IV) 역시 선교단을 파견하였는데, 수도사 요한 몬테코르비노(John of Montecorvino)가 1294년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칸발리크(Khanbaliq, 현 베이징)에서 새로 등극한 원의 2대 황제 성종(成宗) 올제이투 칸(Олзийт хаан, 完澤篤汗, 테무르)에게 교황의 친서를 전달하고 가톨릭의 포교를 허락받았다. 몬테코르비노는 1299년 베이징(北京)에 최초의 가톨릭 교회를 세웠다. 그는 옹구트 족의 수령이었던 기와르기스를 네스토리우스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현 중국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 인근에 있는 옹구트 족의 울룬 슴 고성⁸⁾에 로마 교회(Ecclesia Romana)를 지었다고 한다. 다만 1299년에 기와르기스가 사망하면서 그의 동생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톨릭으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네스토리우스교로 돌아가게 되었다(김호동 2002: 277~278).

이처럼 몽골 지역에는 비교적 일찍부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전래되었으며, 몽골제국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종교정책에 따라 몽골은 물론이고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중국 전역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1368년에 명(明)나라가 건국되면서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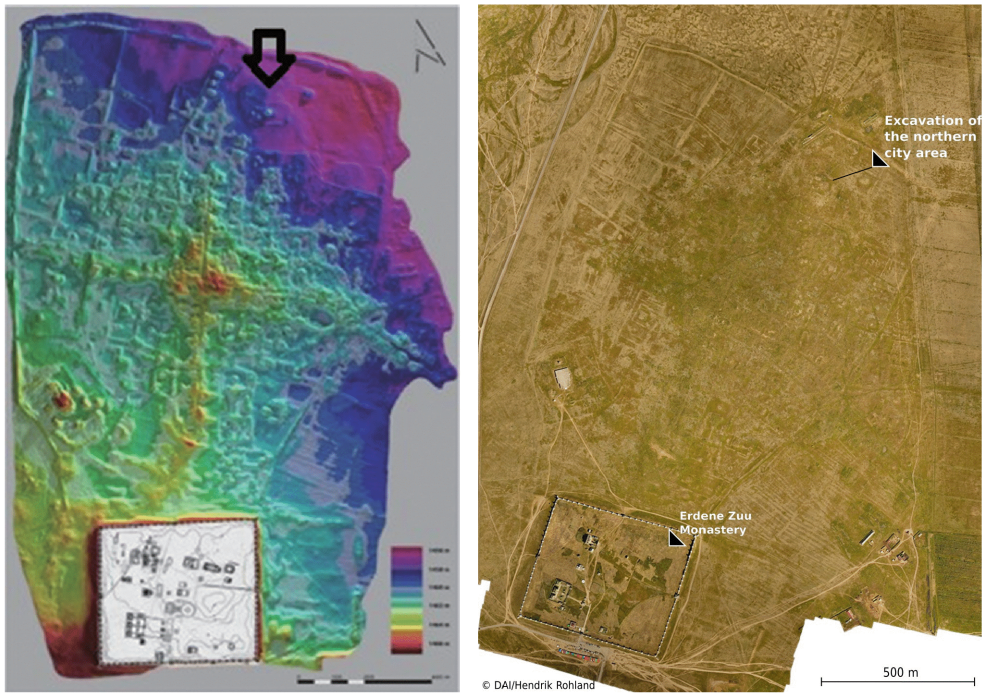
Ⅲ. 몽골 카라코룸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유적

1. 유적의 조사 경위

유적은 행정구역상 몽골 우부르항가이 아이막(Ovorkhangai Aimag) 하라호름 슴(Kharkhorum sum)에 위치한다. 카라코룸(Kharkhorum/Karakorum)은 옛 몽골제국의 수도로,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2004년에 등재된 ‘오르혼 계곡의 문화경관(Orkhon Valley Cultural Landscape)’⁹⁾에 속해있다.

8) 내성과 외성 2중 구조로 된 토성으로, 외성은 동서로 긴 둘레 3km 가량의 평면 장방형 구조이며, 내성은 둘레 800m 가량의 방형 구조이다. 내성의 서북쪽 모서리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터가, 외성의 동북쪽 모서리에 로마 가톨릭 교회터가 발견되었다.

9) 이들 문화경관에는 6~7세기대 돌궐 유적, 8~9세기대 위구르 수도였던 하르 발가스(Khar Balgas), 13~14세기대 몽골제국 수도였던 카라코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삽도 3] 카라코룸과 유적의 위치(©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 ©DAI)

카라코룸은 칭기스 칸이 1220년에 몽골제국의 첫 수도로 정하였던 곳으로,¹⁰⁾ 중국과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카라코룸은 중국 문헌에는 ‘객라화림(客喇和林)’ 내지는 ‘화림(和林)’으로 기재되어 있다(김경나 2019: 194~198). 몽골 어로는 ‘검은 도시’ 혹은 ‘검은 성벽’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라코룸 일대는 19~20세기 초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진행한 이후, 1999년부터는 몽골과 독일이 1998년 양국 대통령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해당 연구 프로젝트는 ‘오르혼 계곡의 문화경관(Kulturlandschaft Orchontal)’¹¹⁾과 ‘칭기스 칸의 도시, 카라코룸(Karakorum – Die Stadt des Dschingis Khan)’¹²⁾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2월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10) 『원사(元史)』에는 1235년 봄 몽골제국의 2대 칸인 우구테이가 오늘날의 카라코룸 부근에 있는 달란다비스에서 소집한 쿠릴타이(khuriltai)에서 이곳을 제국의 수도로 선포하고, 1년 만에 만안궁(萬安宮)을 지었다고 한다. 반면 「흥원각비(興元閣碑)」에는 칭기스칸 15년, 즉 경신년(庚申, 1220)에 도읍을 화림(和林), 즉 카라코룸에 정했다고 한다.

11) <https://www.dainst.org/forschung/projekte/noslug/2144>

12) <https://www.dainst.org/forschung/projekte/karakorum-die-stadt-des-dschingis-khan/2562>

Steinmeier) 독일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 또한 기간이 5년 연장되었다. 프로젝트는 발굴조사 외에도 유적지의 지형도 작성, 유물 분석, 대중과의 결과 공유 및 전시회 개최 등도 포함되어 있다.¹³⁾

몽골-독일 공동 발굴조사단은 몽골제국 옛 수도의 구조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넓히고, 기능이 불분명한 건축물과 행정구역 등을 발굴조사 함으로써 당시 수도의 모습을 고고학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몽골-독일 공동 카라코룸 조사단은 2000년부터 고대 도시의 중앙부를 발굴조사 함으로써 수공업 및 무역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흔적들을 확인해 오고 있다.

해당 조사단은 2006년~2007년, 2009년에는 도시의 북쪽 외곽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복합건축 유적을 발굴하였고, 2021년에는 건축유적을 감싸고 있는 토담 일부를 시굴조사 한 바 있다.

2. 조사 개요 및 성과¹⁴⁾

카라코룸 북편에 위치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적의 성격에 대한 첫 번째 논의는 1933년의 일로, 옛 소련의 드미트리 데미야노비치 부키니치(D. D. Bukinich)의 탐험대에 의한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였다. 당시 조사단은 건축물 잔해의 일부에 설치한 시굴 피트에서 자기를 비롯한 불교 탑 모형 유물이 출토되자 종교와 관련된 유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Букиннич 1933).

해당 유적은 카라코룸 중세 도시 중앙부에 분포하고 있는 건물지들과 분리되어 도시의 가장 북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 성벽에서는 안쪽으로 약 200m 떨어져 있는 곳이다(삽도 3).

유적은 발견 당시 규모 70×140m인 장방형의 얇은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가장 오른쪽에는 작은 둔덕이, 중앙에는 가운데 중심 건축물로 보이는 비교적 큰 둔덕과 앞쪽으로는 작은 둔덕이 일정 간격을 두고 나란히 확인되었다. 오른쪽에 치우쳐 발견된 작은 둔덕은 얇은 토루(토담)에 연결되어 있어 위치상 출입문 시설이 있었을

13) <https://mongolia.gogo.mn/r/7jnxo> (2024.8.10. 접속)

14)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관계로, 조사 내용과 관련한 기본 정보는 T.Batbayar(2022)와 Hendrik Rohland(2019)의 박사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것으로, 중앙부에 있는 30×30m 규모의 비교적 큰 건축물 잔해에는 중심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에 당시 발굴조사는 중앙 건축물터(삽도 4-1)와 앞쪽의 보조 건축물터(삽도 4-2)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유적은 두 시기로 구분되었는데, 초축 당시에는 중앙부의 중심 건물만 존재하였고, 이후 시기에 중심 건물이 개축되면서 보조 건물이 추가로 들어섰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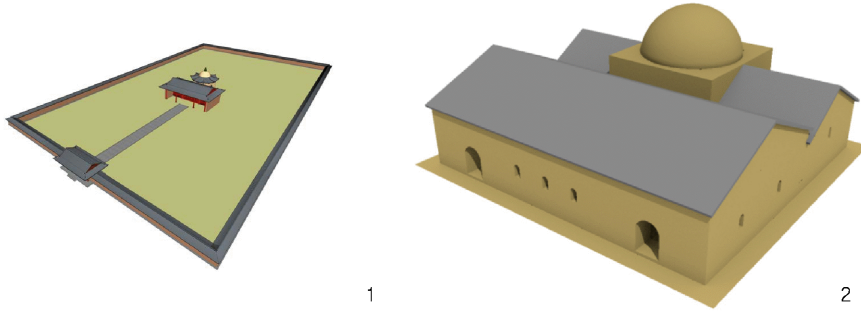
[삽도 4] 유적 조사 모습(©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1.중앙 건축물터 2.보조 건축물터)

1) 초축 시기의 건축 유적(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초축 당시의 중앙 건축물은 이후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며 들어선 후대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건축 양식 및 구조를 보여주었다. 초축 시기 중심 건축물은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장방형 외곽 토담의 중심축 위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배치는 후대에 개축된 중앙 건물 및 주변의 부속 건축물과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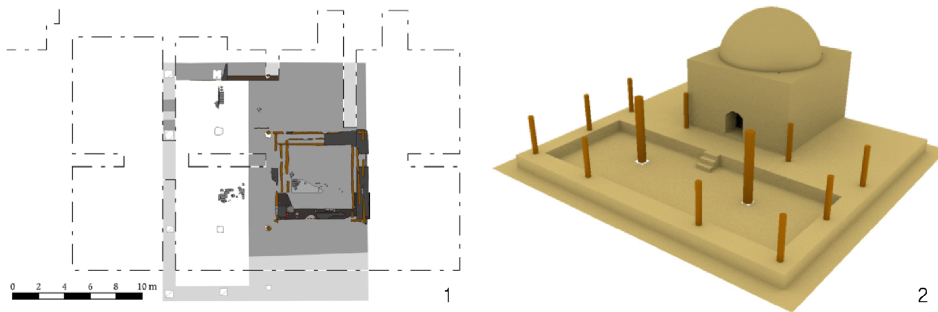
중앙부에 세워진 건물은 앞쪽의 큰 방과 뒤쪽의 소형 방이 별도의 시설 없이 바로 연결된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삽도 5). 소형 건물의 평면은 방형이며, 규모는 약 7×7m이다. 소형 방에는 별도로 높은 단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쪽 방은 8×17m 크기로, 3칸×2칸의 장방형 초석 건물지이다. 가운데 칸 너비는 8m로, 양쪽 칸보다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 건물지 바닥에는 전돌이 깔려 있었으며, 벽체 안에서도 전돌이 발견되었다.

해당 건물의 건축적 특징 중 하나는 출입문의 방향으로, 남향이 기본인 몽골 전통 건축과는 달리 동향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카라코룸 중세 도시 유적에서도 대부분의 건축물은 모두 남향이다. 이는 카라코룸뿐만 아니라 중세시기 다른 여러 유적들에서도 입증되는 바로, 몽골의 이동식 가옥인 게르(Ger) 또한 마찬가지다.



[삽도 5] 초축 시기 건축물의 복원도

(1.초축 당시의 유적 배치 복원도(T.Batbayar 2022: 도 5) 2.초축 건물 복원도(H. Rohland 2019: 도 47-5))



[삽도 6] 초축 시기의 유구 평면도 및 복원도

(1.초축 유구 평면도(T.Batbayar 2022: 도 10) 2.건물 내부 복원도(H. Rohland 2019: 도 47-4))

이처럼 전통적인 몽골 건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해당 건축물은 다수를 수용할 수 있는 앞쪽의 큰 방과 높은 제단이 있는 작은 규모의 뒷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교시설로 추정된다. 해당 시기에는 전통적인 샤머니즘 외에도 몽골제국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면세의 특혜를 누렸던 기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그리고 몽골제국에서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유대교 등이 있었다(조원희 2019: 184~185). 이에 본 건축물이 어떠한 종교의 시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Mosque)는 가운데 기둥이 없는 중정과 신성한 기도 공간으로 4~6열로 정리된 퀴브라(Quibla)벽, 메카 방향을 향하는 벽감인 미흐랍(Mihrab)과 예배를 알리는 첨탑인 미나렛(Minaret)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의 평면은 기본적으로 정방형이며, 열 주랑으로 둘러싸인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손광호 2007: 14). 몽골제국 시대 모스크의 모습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문 반대편 벽면에 미흐랍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즉, 메카를 향하는 예배의 방향에 맞

취 모스크의 정문 역시 결정되었을 것인데, 카라코룸 복단에서 발견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앞 방이 메카 방향이라는 점에서 이슬람 종교 건축으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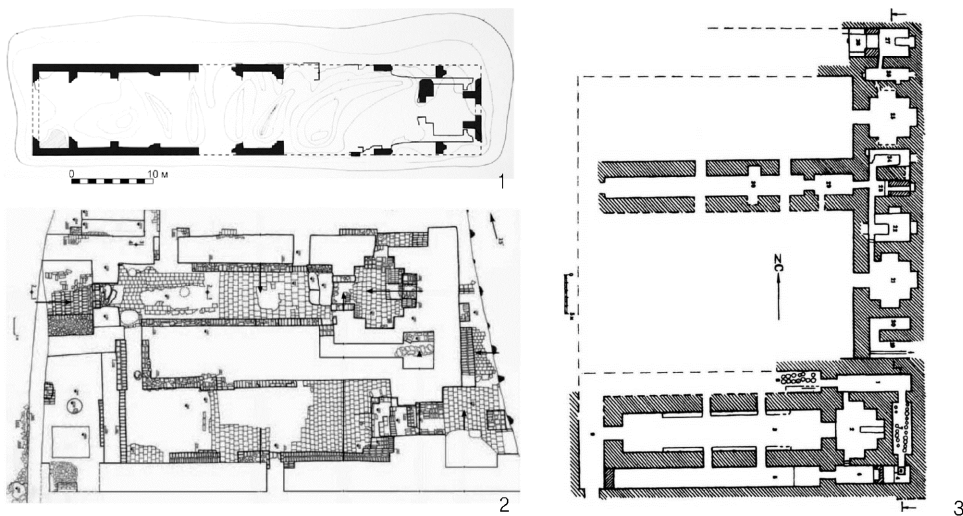
또한 해당 건축물은 몽골제국 시대의 불교 사찰과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루브룩의 여행기에 따르면, 불교 사원의 건물(금당)은 동서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데, 북쪽에는 마치 성가대석과 같은 감실(龕室)이 있다고 하였다. 간혹 건물이 방형인 경우에는 북편 중앙에 감실이 있다. 해당 감실에는 길이와 폭이 탁자 하나 정도인 케를 두고 공물을 올리며, 케의 뒤에는 주된 우상(불상)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원은 남쪽에 문을 두고 담장을 둘렀는데, 문 위에는 높은 장대(당간지주)가 있으며, 담장 내부에는 멋진 정원 시설이 존재한다고도 하였다. 이 밖에도 여행기에는 승려들이 열을 지어 독경을 하는 공간에 대한 묘사와 함께 사원에서는 100명 혹은 200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윌리엄 루브룩(김호동 역) 2015: 259~264). 이러한 점에서 해당 건축물은 불교 사원 건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건축물의 평면 계획 및 건축 구조는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발견되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유적과 유사하다(삽도 7). 출입 시설 반대편에 제단을 갖춘 방이 있는 평면 세장방형 기본 구조의 이들 건축물은 실크로드 상의 주요 오아시스 도시 중 하나였던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브(Merv)에서 북쪽으로 약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이른 5~6세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유적으로 추정되는 하로바-코슈(Haroba-Koshuk) 유적이나 키르기스스탄 북쪽의 고대 정착지 악베심(Ak-Beshim)에서 확인된 8세기 교회 및 10~11세기 교회 유적,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인근에 있는 우르구트(Urgut)에서 발견된 7~13세기 교회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А.А.Михеева 2019: 153~169).

하로바 코슈(혹은 하로바 코스트) 유적은 1951년 조사 당시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의 51×13m 규모의 장방형 건물로, 건물의 동쪽 끝에는 예배당으로 추정되는 반원형 후진(後陣, 감실)이 있고, 제단이 있는 앱스(apse)의 양쪽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깊은 벽감이 있으며, 내부 벽은 아치형 벽감으로 장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2010년 조사에서는 건물이 길이는 55m, 너비는 13~18m이며, 길고 좁은 형태의 서쪽 구조물과 남북 방향 돌출부가 달린 동쪽 구조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재보고되었다. 동쪽 구조물은 서쪽 구조물에 비해 지하가 평균 1.5m 가량 더 깊다. 두 건축 구조물 모두 사산조의 각기 다른 시기에 건축되었고, 셀주크 시대에 추가적인 복원과 조정이 있었다고 보았다(박아림 2024: 5~7).

우르구트 유적 역시 두 개의 신랑(身廊)이 있는 장방형 평면의 건물지로, 신랑의 중앙에는 벽돌로 축조한 넓은 제단(9.3×3.35m)이 있다. 주 출입구는 서쪽 벽에 있는 아치형의 문이다. 건물이 처음 세워진 7~8세기에는 장방형의 구조였는데, 11세기에 십자형 예배당이 북동쪽에 추가되었고, 동쪽에는 하로바 코숙에서도 발견된 부속 건물과 여행자를 위한 숙소가 추가되었다(박아림 2024: 10).

악베심 교회 유적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늘어진 36×15m 규모의 장방형 구조로, 두 개의 중심 건물로 구성된다. 건축물은 5.3×4.8m 규모의 중심 예배당(기도실)과 여기에 연결된 27×12m 규모의 점토벽돌 벽체가 있다. 출입 시설은 예배당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방의 벽체에는 채색 흔적이 확인되어 예배당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담장 인근에서는 유리구슬과 귀걸이, 십자가 등의 유물이 부장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의 무덤도 발견되었다(Kyzlasov 2010: 355~363).



[삽도 7] 중앙아시아 지역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유적(A. A. Михеева 2019: 도2·5 재인용)
(1. 하로바-코숙 유적 평면도 2. 우르구트 유적 평면도 3. 악베심 유적 평면도)

사실 루브룩의 여행기에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¹⁵⁾와 카라코룸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몽케 칸의 궁전 바깥쪽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생활하는 구역과 거란인들이 생활하는 구역이 있다. 이슬람 구역에는 여러 사신과 많은

15) 루브룩이 경험한 이슬람 지역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는 그들이 제단으로 사용하며 그 위에 등불과 봉헌물 등을 올려 놓는 계가 있는데, 그 뒤로 성 미카엘같이 생기고 날개가 달린 성상 하나와 손가락으로 마치 축복을 하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주교들을 닮은 듯한 작은 조각상들이 있었다고 한다(윌리엄 루브룩(김호동 역) 2015: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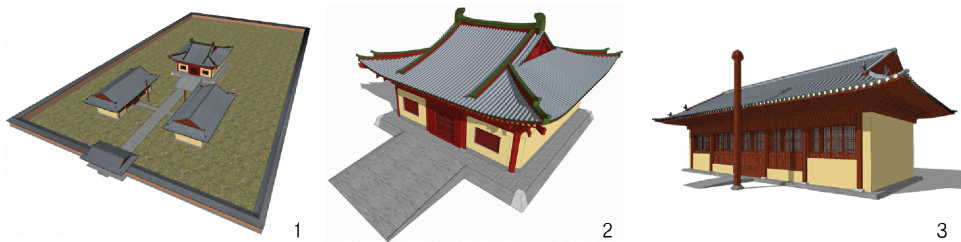
상인이 모이는 바자르들이 있고, 거란인들은 모두 장인들이다. 또 이들 구역과 떨어진 곳에는 다시 궁정 서기들에게 속하는 커다란 궁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우상(불상) 신전들이 있는 불교 사원, 2개의 이슬람 사원,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가 있다(윌리엄 루브룩(김호동 역) 2015: 338). 그리고 이 기독교 교회는 가장 먼 끝에 있다고 전하고 있어, 이번에 발견된 유적의 위치와도 부합함을 알 수 있다.

2) 개축 시기의 건축 유적(불교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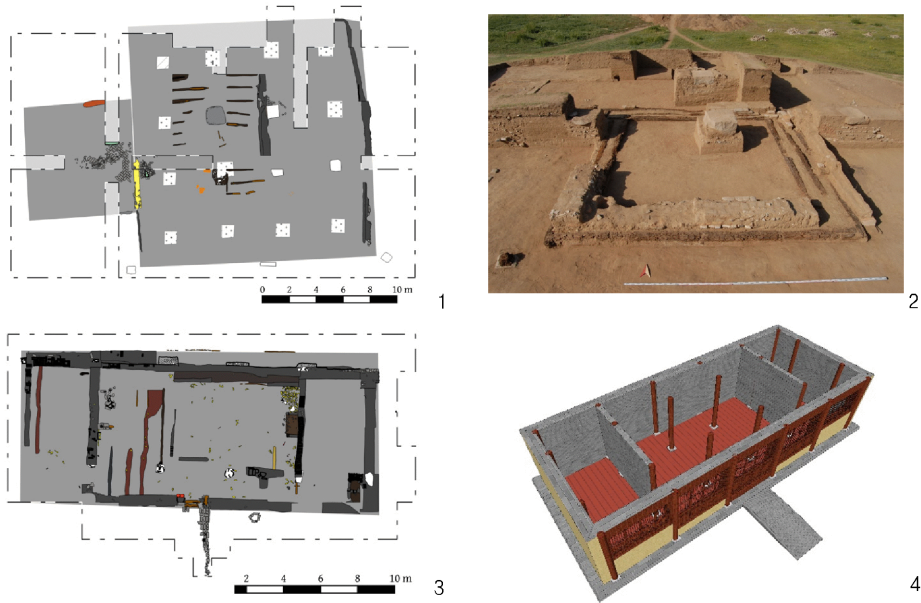
개축 시기의 건축 유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축 시기의 교회 건물지와는 다른 건물 배치를 보여준다. 장방형의 담장 안에 중앙부에서 약간 뒤쪽으로 치우친 중심 건물과 그 앞으로 배치된 측면의 건물 2개가 확인되었다(삽도 8-1). 그리고 건물 주변에서 벽돌이 깔린 길의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각 건축물은 벽돌길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중앙부의 중심 건축물(삽도 8-2, 9-1)은 앞 시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건물지 위에 축조되었는데, 전체적인 평면은 약간 뒤로 이동하였지만 규모는 확대되었다. 정방형 평면 기초로, 규모는 17×17m이다. 건물은 방형의 화강암 석재를 이용한 초석이 특징이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기와 건축이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1m 가량의 성토대지 위에 조성되었는데, 이전 건물의 잔해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문 앞에는 벽돌을 깬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다. 건물 내부는 나무바닥을 시설하였으며, 건물 외부에는 벽돌을 깔았다.

건물터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와당이나 장식 기와는 물론이고 녹유 치미 파편도 발견되어 건축물의 당시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건물지 벽체에서는 불상이 그려진 벽화편이 확인되어(삽도 12-5·6), 해당 건축물이 불교 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삽도 8] 개축 시기 건축물의 복원도(T.Batbayar 2022)
(1. 건물 배치 복원도(도 6) 2. 중심 건물 복원도(도 25) 3. 측면 건물 복원도(도 28))



[삽도 9] 개축 시기 건축물의 평면도 및 복원도(T.Batbayar 2022)

(1.중심 건축 유구 평면도(©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중심 건물터¹⁶⁾(©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3. 면 건축 유구 평면도(도 33) 4.측면 건물 복원도(도 36))

한편, 중심 건축물 아래 토층에서는 화재 흔적이 발견되었다. 기둥구멍에 목재 샘플을 이용하여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된 결과, 초축 시기 층의 연대는 $2\sigma(95.46\%)$ 의 확률로 1223~1273년(777 ± 18 BP)과 1223~1274(777 ± 18 BP), 그리고 개축이 이루어진 후대 층의 목재 연대는 $2\sigma(95.46\%)$ 의 확률로 1268~1375년(705 ± 18 BP)으로 확인되었다.¹⁷⁾ 이들 연대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 유적

16) 사진에서 초축 시기의 건축 유구는 앞쪽 방형 건물 구조물의 목재 기초와 부분적으로 보존된 점토벽체 및 소성된 장식 벽돌 등으로 기본적으로 장방형 초석 부재 아래 토층의 것들이다. 상단부의 방형 초석 부재 상층부는 뒷 시기의 건축 유구의 잔존물이다.

17)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내 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Labornr MAMS	Probenname	¹⁴ C Alter [yr BP]	±	δ13C AMS [‰]	Cal 1-sigma	Cal 2-sigma	C [%]	Material
30190	2006 - 560 Holzkohle aus Türschwelle	731	19	-33,2	cal AD 1269-1281	cal AD 1262-1287	55,4	charcoal
30191	2009 - 1 Holz aus Ständer	934	18	-30,8	cal AD 1041-1152	cal AD 1035-1154	54,6	wood
30192	2009 - 10 Holz aus Schuttschicht	705	18	-32,1	cal AD 1276-1288	cal AD 1268-1375	52,3	wood
30193	2009 - 15 Holz aus Schuttschicht	776	18	-33,1	cal AD 1228-1270	cal AD 1223-1274	48,0	wood
30194	2009 - 27 Holz aus Balken	832	18	-32,6	cal AD 1190-1244	cal AD 1169-1254	47,1	wood
30195	2009 - 31 Holz aus Balken	844	18	-31,4	cal AD 1170-1219	cal AD 1162-1246	46,6	wood
30196	2016 - 903 Holz aus Holzkonstruktion	777	18	-32,0	cal AD 1228-1270	cal AD 1223-1273	47,2	wood

은 13세기 후반에 화재로 폐기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 건축물(삽도 8-3, 9-3·4)은 기본적으로 8×19m 규모의 장방형 평면을 가진 초석 건물지로,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 건물 내부는 벽체를 통해 3개의 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큰 홀이 있고, 양쪽 측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건물의 문은 남쪽 중앙에 있다. 나무로 바닥을 하였으며, 굽지 않은 벽돌로 벽체를 쌓았으며, 지붕에는 기와를 얹은 목조 건축이다. 문지방에서 채집한 목탄 샘플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하여 2σ(95.46%)의 확률로 1262~1287년(731±19 BP)이라는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대값은 중심 건축물 연대 측정값과도 부합한다.

오고타이(우구데이) 칸은 1235년에 카라코룸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1238년까지 중국 건축가들을 동원하고 카라코룸에 성곽과 도시를 짓게 하였다. 카라코룸에는 오고타이의 왕궁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들에게도 궁궐을 짓도록 하였고, 중국 장인을 비롯하여 중동 및 근동의 기술자들도 정착을 시켰다. 다만 1941년 오고타이 칸이 사망한 뒤에는 그의 가문과 툴루이 가문 후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몽골제국은 한동안 혼란이 계속되었다. 특히 오고타이 칸의 손자였던 카이두 칸은 쿠빌라이 칸과 대립하였는데, 1278년에는 카라코룸을 공격하였으며, 1286년과 1289년에는 일시적으로 카라코룸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3세기 후반 카라코룸은 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던 바, 당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 출토 유물 검토

해당 유적에서는 토기, 자기, 철기, 동기, 석기, 골각기 등 총 2,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해당 유적이 종교 건축물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물로는 십자가, 목주, 제사용 그릇, 향로, 소뿔 등이 있다.

청동제 십자가 파편(삽도 10-1)은 교회로 추정되는 건물의 중앙 공간에서 북쪽 벽 계단 바로 앞에서 발견되었다. 십자가는 끝 부분에 둥그런 구슬 장식이 특징적이며, 중앙부에는 무언가 부식된 물질의 흔적이 남아있다. 해당 십자가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전형적인 십자가 형태로, 중동 및 중앙아시아, 내몽고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투르키스탄 코초(Qocho)에서 발견된 8개의 둥그란 장식이 달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십자가를 들고 말을 탄 사제가 그려진 벽화(삽도 10-3)

나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브(Merv)에 위치한 에르크 칼라(Erk-Kala) 고대 도시 유적에서 발견된 동일한 형태의 작은 십자가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거푸집(삽도 10-4), 하로바 코숙에서 출토된 도금된 청동 십자가(삽도 10-5)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인근의 무덤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실물 십자가가 발견된 바 있고,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박물관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여러 박물관에 전시된 납골기, 내몽고 지역 등에서 발견된 묘비석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십자가 문양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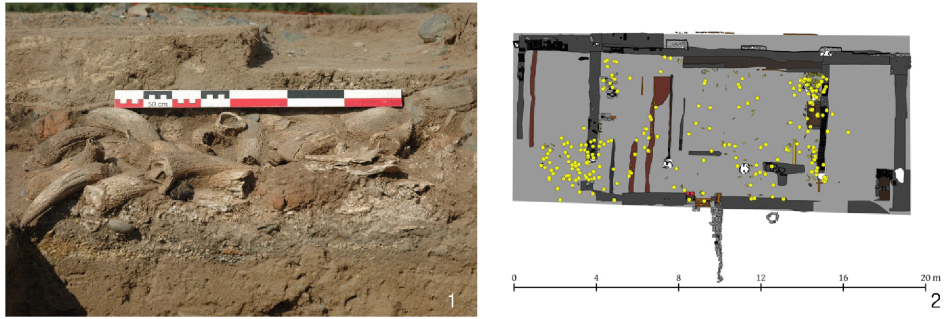
한편, 루브룩 여행기에도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아르메니아 사람이 가져왔다고 한 은제 십자가의 경우, 4마르크(800g) 정도의 무게로, 모퉁이에 네 개의 보석이 있고 가운데 또 하나가 박혀 있지만, 그 위에는 [그리스도]의 상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르메니아와 네스토리우스 교도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못박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 난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윌리엄 루브룩(김호동 역) 2015: 309).



[삽도 10]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관련 유물

1.카라코룸 출토 십자가 파편(©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2.십자가 복원도(T.Batbayar 2022: 161) 3.코초 벽화 모사도(A.Grünwedel 1912: 339) 4.에르크 칼라 출토 십자가 거푸집(박아림 2024: 도10) 5.하로바 코숙 출토 청동 십자가(박아림 2024: 도8) 6.카라코룸 출토 쫓대 받침대 파편 7.13세기 참고품¹⁸⁾

18) Hendrik Rohland 2019: 도판 22 재인용(프랑스 리모주 출토).



[삽도 11] 측면 건물지 출토 소뿔 및 분포 현황(©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1.소뿔 2.소뿔 분포 현황)

그리고 청동제 촛대 받침대 파편(삽도 10-6)은 부러진 촛대 일부와 구형 장식, 그리고 꽃잎으로 장식된 기저부와 이를 받치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다리 중 하나만 남아있다.¹⁹⁾ 이러한 형태의 유물은 동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 지중해, 이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십자가 받침이나 촛대 받침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세 발과 꽃잎의 모티브로 구성된 촛대 받침은 초기 이슬람 미술품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중세시대가 되면 이미 이란에서는 그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 해당 유물은 오히려 당대 서유럽에서 유행하였던 촛대와 유사한데, 12세기 독일 북부에서 발견된 십자가 받침대 내지는 13세기 전반 프랑스 리모주에서 만들어진 촛대(삽



[삽도 12] 개축 시기 건축물 출토 유물 각종(©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1.괴수모양 장식 기와 2.와당 3.사천왕상 파편 4.치미 파편 5.벽화 파편 6.벽화 파편)

19) 다리 파편 중 하나는 뒷 시기 측면 건물의 기초 아래층에서 발견되었다.

도 10-7) 등과 비슷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루브록 여행기에는 몽골제국 시기에 카라코룸에서 프랑스 출신 금 세공인이 활동하였고, 그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을 위해 종교 물품을 제작했음이 기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Hendrik Rohland 2019: 86~88).

이상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들 유물은 13세기 몽골제국 시대 카라코룸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당 유적에서는 소뿔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축 시기의 측면 건물지에서는 출토 유물 580여 점 중 40%인 230여 점에 달하는 소뿔이 발견되었다. 소뿔은 건물지 내 벽면에 일부 집중되는 양상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다. 몽골에서는 오래 전부터 양, 염소, 말, 소, 낙타 등을 키웠으므로 유적에서 소뿔이 발견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뿔은 활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한데, 해당 유적에서는 수공업과 관련한 다른 증거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공방도 아닌 곳에서 소뿔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해당 유적에서 제사 내지는 의례와 관련하여 소뿔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몽골-독일 공동조사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던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 북쪽에 위치한 복합건축유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방형의 토축 담장으로 둘러싸인 해당 유적은 발굴조사 결과 건물의 평면 배치와 유구의 중복 관계를 근거로 두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우선 최초의 건축유적은 담장시설 중앙부에 앞쪽의 큰 방과 뒤쪽의 작은 방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의 건물이었다.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운 건물로, 바닥에는 전돌이 깔려 있었다.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문이 동쪽을 향해있다는 점과 뒤쪽의 작은 방에 제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남향을 기본으로 하는 몽골의 전통 건축과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유적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특징적인 십자가 파편과 함께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였던 촛대와 유사한 형태의 청동유물 등이 출토되어, 몽골제국 시대에도 여전히 성행하였

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교회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유적은 카라코룸 북쪽 외곽에 있는데, 루브룩의 여행기에 서술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의 위치와도 부합한다. 또한 건물 자체의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가 기본적으로 장방형의 평면 구조와 끝부분에 제단이 있는 감실(예배당)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확인된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교회는 13세기 전반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발굴조사 결과 화재로 폐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13세기 후반 카라코룸을 둘러싼 전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염두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교회가 폐기된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치 구조를 달리하는 3동의 기와 건물이 곧바로 들어섰는데, 그 구조나 출토 유물 등을 통해 불교 사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측면 건물 내부에서는 소뿔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해당 장소에서 특정 의례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카라코룸 북쪽 외곽에 위치한 2000년대 몽골-독일 공동조사팀에 의해 발굴조사된 복합건축유적 중 초축 시기의 건물지는 루브룩 여행기에서도 언급된 몽골제국 시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교회로 비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고고학적인 검토를 통해 몽골제국 시대의 수도였던 카라코룸은 다양한 종교와 민족 집단이 공존하였던 곳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24. 8. 13 | 심사완료일 2024. 9. 24 | 게재확정일 2024. 10. 10

참고문헌

- 한국어 -

- 강인욱, 2018, 「발해와 신라로 전래된 기독교 - 고고학으로 본 네스토리우스교의 동방전래와 그 의미-」, 『북방 유라시아 제사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주류성.
- 김경나, 2019,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8-2.
- 김호동, 2002,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까치글방.
- _____, 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세계철출판사.
- 박아림, 2024,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대 메르브의 동방기독교 유적」, 『중앙아시아연구』29-1.
- 손광호, 2007, 「이슬람 건축의 공간구성과 표현방법 연구」, 『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Design』6-1.
- 안주홍, 2019, 「시리아-동방교회의 형성과 외방선교에 관한 교회사적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알탕수흐 벨레레흐, 2020, 「12-13세기 몽골제국과 동방 기독교」,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윌리엄 루브록(김호동 역), 2015, 「루브록의 『몽골 기행』」, 『몽골제국 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 까치.
- 장호현, 2014, 「景教(Nestorianism)의 東方 傳播」, 『동방문화비교연구』2.
- 정지호, 2022, 「『대진경교유형중국비』의 해제 및 역주」, 『아시아가톨릭연구』1.
- 소원, 2018, 「몽골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수사 랍반 사우마」, 『유라시아로의 시간 여행』, 세계절.
- 소원희, 2019, 「몽골제국의 종교관에 대한 시론적 재검토: “종교”와 “종교적 권용”의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35.

- 러시아어 -

- Буклич Д.Д. Общий отчет по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 работам за 1933 и 1934 год(1933년과 1934년의 고고학적 조사에 대한 종합 보고서). Рукописный фонд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Академии Наук Монголии(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필사본 소장). Ф. 9, Т. 11, ХН. 23.
- А.А. Михеева(키타세카), 2019, Хароба—Копук — история изучения и архитектурная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подобных сооружений на Среднем и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하로바-코슈: 중동과 근동 지역의 유사 건축물의 연구사와 건축적 연속성), Эпоха империй. Восточный Иран от Ахеменидов до Сасанидов: история, археология, культура(제국의 시대,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사산 왕조까지의 동이란: 역사, 고고학, 문화), МОСКВА.

- 몽골어 -

- T.Batbayar, 2022, ХАРХОРУМЫН НЕСТОРЫН ШАШИНТНЫ ДУРСГАЛЫН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АЛГАА(카라코룸의 네스토리안 기념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МОНГОЛЫН АРХЕОЛОГИЙН ШИНЭ СУДАЛГА А ЦУВРАЛ - VII(몽골 고고학의 신 연구 시리즈 VII), 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 연구소), ULAANBAATAR.

- 독일어 -

- A.Grünwedel, 1912, Altbuddhistische Kultstätten in Chinesisch-Turkestan. Bericht über archäologische Arbeiten von 1906-1907 bei Kuča, Qarašahr und in der Oase Turfan(중국-투르크িস탄에서의 고대 불교 성지, 쿠차, 카라샤르, 투르판 오아시스에서 1906-1907년에 수행된 고고학 보고서), Berlin.
- Hendrik Rohland, 2019, Die Nordstadt von Karakorum: Archäologische Spuren der Kirche des Ostens und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in der altmongolischen Hauptstadt(카라코룸의 북부 도시:

고대 몽골 수도에서의 동방 교회의 고고학적 흔적과 문화 교류). Dissertation zur Erlangung des Doktorgrades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der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독일 킬 대학 박사학위논문), Kiel.

- 영어 -

Georgina Herrmann, 1997, A Central Asian city on the Silk Road: ancient and medieval Merv, Archaeology International, Ubiquity Press Ltd.

Kyzlasov L.R., 2010, The Urban Civilization of Northern and Innermost Asia.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Research, ROMANIAN ACADEMY INSTITUTE OF ARCHAEOLOGY OF IAȘI, București-Brăila.

A Study on the Nestorian Christian Church Site in Karakorum, Mongolia

T.Batbayar(Researcher, Institute of Archaeolog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G.Eregzen(Director, Institute of Archaeolog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S.Yang(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a complex architectural site, excavated by the Mongol-German joint research team from 2006 to 2009, located in the northern outskirts of Karakorum, may have been a Nestorian Christian church.

The rectangular complex, surrounded by earthen-walls, can be divided into two phases based on the building's layout and overlapping architectural features. The initial structure within the complex had a unique configuration, with a large room at the front directly connected to a smaller room at the back, situated centrally within the walled area. Unlike traditional Mongolian architecture, which typically faces south, this building faced east, and it is notable for having an altar in the smaller rear room.

Artifacts found at the site include fragments of a cross, characteristic of Nestorian Christianity, and bronze artifacts resembling candlesticks popular in medieval Europe. These findings strongly suggest that the site was a Nestorian Christian church during the Mongol Empire. The site's location in the northern outskirts of Karakorum aligns with the description of a Nestorian Christian church in William of Rubruck's book. Additionally, the basic rectangular layout with a niche(apse) at the end containing an altar, as found in Central Asian Nestorian churches, further supports this identification.

Radiocarbon dating indicates that the church was constructed in the early 13th century. The excavation revealed that the church was destroyed by fire. However, after the church's destruction, three tiled buildings with a different layout were immediately erected on the site. The structure and artifacts suggest that these buildings were likely a Buddhist temple. Additionally, a significant number of cattle horns were found inside the side buildings, suggesting that specific ritual activities took place at this location.

Key words : Mongolia, Karakorum, Nestorian Christian Church, Buddhist temple, Cross, Mongol Empire